

## 민주당의 부정선거 질주 의혹, 도민 심판이 멀지 않았다.

선거 막판, 패색이 짙어진 민주당이 안달이 난 모양이다.

미증유의 국가위기상황에도 민주당의 머릿속엔 오직 ‘선거’ 밖에 없다.

한태선 민주당 천안시장 후보는 현직 공무원과 유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상대후보 비판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아산갑 민주당 관계자를 어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충남도의원 A씨도 같은 당 예비후보 선대위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며칠 전 검찰에 고발됐다.

불리한 판세를 뒤틀려는 민주당의 부정선거 획책이 곳곳에서 기승이다.

입으로는 ‘정정당당 정책선거’ 사탕발림 하고, 뒤로는 온갖 추태를 저지른다.

국민 축제인 선거가 민주당의 탐욕으로 어지럽고 혼탁하다.

잘한 것 하나 없고, 국가 경영 능력도 변변찮은 민주당이 무슨 염치가 있어 국민 마음을 얻고자 하나?

일말의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오만함의 극치이다.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잘못된 방법으로 표심을 얻으려는 저질 악습에 현혹될 유권자는 없다.

국민은 뒷전인 채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 응징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2020. 04. 13(월)

미래통합당 충청남도당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철희